

르완다 선교방송 개설 및 사령



▲ 좌로부터 서울대 청송 박명운 박사,



르완다연합대학 총장 이창기 박사,



르완다음악대 대학원장 최사라 박사

지저스타임즈 JTNTV(대표 정기남 목사)는 靑松 박명운 박사(서울대학교 보건학 박사 한국보건양양연구소 이사장)를 지난 8월 7일 오후 1시 서울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JTNTV 지저스타임즈 본사 논설위원 고문으로 추대하고 사령했다.

또한 8월 9일 오후 6시 30분 르완다연합대학 이창기 총장을 르완

다 및 주변국 복음화를 위하여 본지 국제부 대표이사로 추대하고 따라서 르완다음악대학 최사라 박사(대학원장)를 르완다 JTNTV 지저스타임즈 방송 대표 기자로 추대하고 각각 사령했다.

이날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 양현모 목사 신문방송 대표 정기남 목사,

성순희 부장 등이 자리를 같이하여 간절한 기도로써 진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르완다연합대학 이창기 총장과 음악대학원장 최사라 선교사는 르완다 주변국에 이르기까지 신문방송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인터넷방송을 통해 영혼구원을 위한 방송선교에 매진할 것이라며 주 안에서 큰 비전을 제시했다.

제 74주년 8.15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이사장 양정섭 목사)는 8월 12일 여전도회관에서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총재 김권현 목사), 사단법인 세계개혁교회연합회(대표회장 최옥석 목사), 사단법인 한국개신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형철 목사)와 가입교단 임원 및 회원들이 모여 제 74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 한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신앙고백과 찬송과 252장 합창, 사) 세계연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의 대표기도, 예장열 총회장 김분희 목사가 성경 왕상 17장 1, 18장 41-46절을 봉독하고, 개혁총창단의 찬양과 예장 정통총회 김병설 목사의 색소폰연주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연합예배에서 사)세계연 총재 김권현 목사는 "아!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든지 자연을 다스리시든지 환경을 통하시든지 계획을 통하여 다스리시고 사용하신다. 그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아픔을 겪을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내 믿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일이 진행되기만을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강인한 메시지가 담겨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응답해야 한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세우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은 고난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신다.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게 하셨듯이 단지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일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철저히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며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붙잡힌 바 되어 쓰임 받는 동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는 예장 정통총회 삼일총무 임정태 목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작으로 예장 기도총회 증경총회장 김성환 목사가 한국교회와 1,200만 성도를 위해, 정통총회 부총회장 이영춘 목사가 일본 회개 촉구와 독도를 지키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사)한개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인사 말씀, 만세삼창에 이어, 사)한개협 대표회장 박형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보안관리대 직원, 서울남부구치소 참관

서울남부구치소는 2019. 8. 6.(화) 형사실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자 서울서부지방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에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평소 법정에서 마주하며 근무하고 있는 법원 보안관리대 직원의 교정시설에 대한 실무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진행 되었다. 이 날 서울서부지방법원 보안관리대 직원들은 교정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동영상을 시청하고, 시설 참관을 통해서 수용자 거실, 취사장 등 엄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직접 눈으로 접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평소 교정행정에 대한 관심 사항을 현장근무자로부터 직접 설



명을 듣고 교정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서울남부구치소는 유관기관의 업무 이해를 높이

기 위해 교정 행정에 대한 안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전국교회연합 영성 수련회

주제 : 이기는 자의 영성과 신부단장



서사라 목사

- 이화여대 의대 졸업,
- 서울의대 생리학 석사,
- 미국 브라운대 의대 생물학 박사취득,
- 미국 바이올라 탈봇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
- (현) 미국 LA 주님의 사랑교회 담임목사,
- (현) LA 새사람 영성 훈련원장,
- (현)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원장,
- (현) 한국복음화운동본부 해외선교총재

집회시간 강사 안내

8월 22(목)-24(토), 목요일 12시-2시 등록

22일 목요일	(오후 2:00) - 서사라 목사 (저녁 7:00) - 피종진 목사
23일 금요일	(새벽 5:30) - 김진석 목사 (오전 8:00) - 이종인 목사 (오전 10:30) - 서사라 목사 (오후 2:30) - 예영수 박사 (저녁 7:00) - 서사라 목사
24일 토요일	(새벽 5:30) - 서사라 목사 (오전 8:00) - 서진경 목사 (오전 10:00) - 서사라 목사



피종진 목사

NYSKC, 월드미션 USA총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대표총재
세계기독교부흥사(합) 대표총재



예영수 박사

예장(총회) 신학대 총장
국제크리스천 학술원, 원장
한국기독교영성총연합회 총재



서사라 목사

미국LA주님의사랑교회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세계선교센터 원장
한국복음화운동본부 해외선교총재



이종인 목사

한국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오산기도원부흥사(합) 대표회장
예장(통합) 원주사랑교회원로목사



김진석 목사

감리교신학대학원 졸업
이천시 경찰서경목위원장
현, 신둔감리교회 담임목사



서진경 목사

성경국제유원재단 이사장
한국복음화운동본부 학술총재
열방영적대각성 한국대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24:42)
*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라 (계22:12)

○ 주최 한국 복음화 운동본부
○ 일시 2019년 8월 22일(목, 오후 2시) ~ 24일(토)
○ 장소 신둔 감리교회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265-1)
○ 회비 3만원 (숙식제공, 세면도구·침구류 지참요)
☎ 031.632.7035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국가안보와 자유복음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 열어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이하-한총연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지난 8월 3일(토) 정오 12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상원 목사(한총연 서기)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김은진 목사(자유노조부위원장)가 기도를, 오이환 박사의 위심찬양에 이어 대표회장 박동호 목사는 “3일 금식으로 지킨 나라”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남성운 목사(한총연상임고문)가 축도했다.

이날 국가안보와 자유복음평화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대표회장 박동호 목사)가 주최하고, WCC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원 목사), 민족사랑운동본부(권태섭 목사)주관으로 오후 1시 권태섭 목사(민사사본본부장)의 인도로 진행되어 성중경 목사(민사본상임고문)의 시국 강연을, 5분메시지에는 이기자 목사(민사본재무)가 나섰다.

이날 박 대표회장은 ‘먼저 말씀 전하기에 앞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전하고자 하는 말씀 가운데 미국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의 부친은 동작동 현 충원에 모셔져 있는 국가유공자 이시며, 저는 미국의 명예시민권자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친미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나라를 위한 저의 애국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국난의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동서 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믿고 도움을 청할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일본을 위시하여 북쪽으로는 북한과 그 위에 러시아 옆에는 중국 등 사방을 둘러보아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적들에게 갇혀있고, 미국조차도 지금은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직 도움을 받을 곳과, 열린 곳은 한 곳 하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찾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8.15 광복은 어떻게 왔습니까? 분명한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 이룬 광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므로 일본이 미국에 무조건 항복 하면서 얻어진 아주 귀하고 값진 광복이었습니니다. 따라서 광복절에 우리가 생각하여야 하는 것 중 하나는 미국에 대한 우리의 입장일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고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배경 중에 싫어하든 좋아하든 미국을 뺄놓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 많은 도움과 원조를 미국으로부터 받으면서 우리는 새마을 운동을 하였고, “우리로 한번 잘살아 보자”고 외치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였기에 그 결과로 우리나라는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급속한 발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

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종교와 문화일 것입니다. 그중 아주 나쁜 것이 들어왔는데 다름 아닌 WCC(세계교회협의회)입니다.

WCC(에큐메니칼 교회)는 평화, 공존, 대화, 교제, 정의 등의 명제를 내세워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 속이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여 우리 기독교회를 세상 여러 종교와 혼합시켜 없애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간계로 만들어진 단체인 것입니다. WCC는 세계교회협의회라는 이름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세계종교협의회입니다. 더 나아가 WCC는 이 세상의 여러 잡신들과 미신과 악령들이 함께 역사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나 교회라는 것은 명분에 불과 할뿐 실제로는 교회단체가 아닙니다. WCC는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적이며 동성애와 일부다처제 및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 인본주의, 개종전도 금지주의 등을 용인·조장하거나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WCC가 북한정권의 독재와 인권 탄압 문제 등에 대해 침

묵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해명이나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3년 10월 제10차 WCC 부산 총회가 끝난 뒤 WCC는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종교대화주의, 로마가톨릭주의, 개종전도 금지주의, 가시적 교회일치주의, 성경불신주의, 특히 사회구원 지상주의, 용공주의, 등은 변함없이 지향하고 표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10차 부산 WCC 총회가 가져온 후유증 중에서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동성애와 친북(종북)주의자들입니다. 국민의 정서가 이들을 받아 주지 않으니 공산주의와 동성애 보호 법이란 말 대신 듣기 좋은 차별금지법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서 자기들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려 편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가 기독교의 반대로 어려워지니까 이제는 전국 시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려는 공문을 각 지자체에 보내서 현재 통과된 곳도 있고 부결된 곳도 있는 현실입니다.

지미션, 호주 멜번 제자교회에 아동전집 지원

기독교 선교후원 전문단체 지미션(대표 박종관)이 호주 멜번 제자교회(담임목사 이치형)에 아동전집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호주 멜번 제자교회는 한국인 교민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35명의 학생들이 매주 한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한글학교 나한나 교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이 한

국어 책을 통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 흥미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에서 한국어 책을 구하기가 어려워 지미션에 도서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에 지미션은 아이들이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호주 멜번 제자교회의 아이들을 위해 전래동화와 아동전집을 지원을 결정했다.



동성애를 하게 되면

항문성교 - 에이즈 걸리면 죽을 때까지 국가가 100% 책임집니다. 국가 예산 현재 1조원 가까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반 : 짐승하고 성교, / 미국에서 여자하고 개하고 결혼시켰습니다. 심지어는 어머니와 딸이 결혼하였습니다. / 아버지와 딸이 결혼하였습니다. 양성이...남자 1 여자 2 / 여자 1 남자 2하고 결 혼이 가능하여 집니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절대 다음 선거 때 절대 표를 찍어주지 마시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3일 금식으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원래 6.25전쟁 중 한국전쟁에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철저한 반공주의자)

이 한국의 인천상륙작전을 하여야 한다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트루먼에게 보고하며 승인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트루먼은 다음 선거인 재선을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을 빼려는 입장이였기에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인 맥아더 장군의 아버지와 맥아더 장군이 3일간 금식기도를 하고 트루만 대통령에게 나아 갔더니 트루만 대통령이 “당신 뜻대로 하시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천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것이며 북한의 김일성으로부터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맥아더 장군에게 크게 감사를 드

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불순한 자들이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여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로 지켜진 나라입니다. 한국에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지금쯤 공산치하에서 북한 동포들처럼 자유는커녕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 상황이었을 터인데 일부 극소수 반미파들의 행동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때에 국난에 처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격고 있는 최대의 위기로부터 하 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다.
후원 및 지원 문의 연락처 : 02-6334-0303,

이메일 : gmission@gmission.or.kr, 홈페이지 : www.gmission.or.kr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대표고문: 피종진 목사 이시자: 하정범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전화 : 전화 : 032)574-6574, 팩스 : 032)672-3031
▶H,P : 010-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선교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미주크리스찬문협 신인등단 시상식 시, 수필, 소설, 동시 분야/ 신인작가 등단 기회 제공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회장 정지운 목사) 제33회 신인등단 시상식 및 축하모임이 지난날 27일 오전 10시 열에이에 위치한 로렐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회장 정지운 목사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정찬균 목사(예심장로교회 담임)가 대표기도를, 김진 10시 열에이에 위치한 로렐스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학'(마가복음1:14-15)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후 송택규 목사(크리스천영성 대표) 축도로 마쳤다. 류민호 부회장 사회로 진행된 2부 시상식은 정지운 회장이 환영사를, 최선호 목사(시인 평론가), 하정아(수필가), 김상분(소설가) 등이 각각 심사 과정과 심사평을, 강권수 선교사와 방동섭 목사, 김복임(동양화가) 등이 작품 심사평

을, 김장진, 홍경애, 박미혜, 홍유리 등이 시를, 이산하가 동시를, 윤덕환이 수필을 각각 낭독했다. 김용섭 장로가 'You Raise up' 하모니가 연주로, 조성건 의 5명은 중창으로 삼긴가운데 수상자들이 수상 소감을 발표할 후 다함께 '나의 살던 고향'을 합창하며 모든 순서를 마쳤다.
■수상자 명단.

△시: 당선작-김장진(귀향), 가작-홍경애(거룩하신 예수), 장려상-박미혜(나의기도), 홍유리(마침표가 원표를 부르는 날에) △수필: 당선작-이희숙(열쇠 열람), 가작-윤덕환(대서양 일출 보기), 장려상-김대웅(초대하지 않은 손님) △소설: 당선작 없음, 가작-손문식(회복), △동시: 당선작-이산하
미주 크리스찬비전 이영민 기자

대한예수교 장로회

푸른솔교회

Prinses Presbyterian Church

2020년도 교회 표어:

광강의 영광을 교회(로.2020)

2020 VISION

광주에서 전 세계로!

From Guang-Ju To all over the world

담임목사

허창범

부 목사: 김미경

협동목사: 유한주, 양연석

시무장로: 안종기, 허성준, 함동호

협동장로: 이창수, 은퇴장로: 공재룡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부 8:00

2부 9:00 3부 11:00

주일오후: 오후 1:30

수요일예배: 저녁 7:00

새벽예배: 5:00

금요일야: 저녁 8:00

광주시 광산구 수완로 11번안길 47.

(영무예대우 2차 후문 앞 수완 중 옆)

TEL 062)953-4620 H.P: 010-8604-6075

바울선교신학연구원(사)한국상담교육발전협의회

푸른솔협동조합(상담 및 대안교육전문)

푸른솔노인복지센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표어: 주께서 이십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

며 나의 메운 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매

이이다.(시30:11)

일방북등산교로인회총재

지저스타임즈사장

JTNTV 칼럼리스트

CP방송수석칼럼니스트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CBS-TV 칼럼리스트

H.P: 010-853-7779

교회: 02)314-1232

담임목사 소진우

PASTOR SOJIN WOO

예배안내

대예배 부오전 9:30분

2부 오전 11시 주일 저녁 7:00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10:00

토요일예배 오후 10:00

신약기도회 매일 오후 10:00

(단, 주일과 수요일은 제외)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 대학부 오후 2:30,

중고등부 오후 2:30분

교회: 경기도 의정부시 누원로 40 (장암동)

Tel (02) 934-1232

대한예수교 장로회

번성교회

2019 번성표어:

평안하여 듣든지 가는 교회

강권하여 대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눅 14:23)

예/배/시/간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저녁 7:30

금요부흥집회 저녁 7:30

새벽 기도회 새벽 5:00

담임목사 박정균

Rev(D.Min) Park Jeong Kyun

대전광역시 서구 34(갈마동 336-22)

☎교회: 042)523-3191 FAX 042)523-3090 Email: jk283@hanmail.net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사랑교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금춧대교회

건강하고 보수적인 신앙을 가려하는 살아있는 교회!

선교에 중점을 두는 교회! 선지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담임목사

장 한국

예배안내

주일 새벽예배 AM 5:30

주일 오전예배 AM 9:00

주일 낮 예배 AM 11:00

새벽예배 화-금 AM 5:00

주일 저녁예배 PM 2:00

남전도회 구역예배 PM 5:00

청년회예배 PM 6:00

수요일예배 PM 7:00분

어린도회 구역예배 PM 7:00

금요일예배 PM 8:00

학살회예배 PM 5:00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화로 10, 7층

(내순동, 대림프라자(고호5))

Tel: (031) 424-7612 / 010-4436-7060

세기총 광복절 메시지

할렐루야! 올해로 우리는 광복 74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제국주의에 주권을 빼앗겨 식민통치 아래 부끄럽게 살 때, 하나님은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신약으로 세워 갈 수 있도록 희망의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36년간의 일본 식민통치의 어두움의 시대를 통해 권력적 탐욕, 인간 억압, 부정과 부패,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천대시하는 악습 등 과거의 잘못을 생각하게 하였고, 마음이 갈기 찢기는 민족적 고통을 겪었지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교훈의 역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민족의 해방과 자주 독립을 열망하는 우리의 소원과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일본의 압

제 하에 신음하며 종의 멍에를 메고 사는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푸심으로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물질만을 의지하고 세상 문화 풍조의 종으로 살아가는 현실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작금의 일본 총리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모호하고 구체성이 없는 이유를 들어 한국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부품 등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였고, 이어 일본은 각료회의를 열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국가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은 안보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음을 대한민국 정부는 잘 인식하고 정책의 부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광복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

해야 할 8월에 “다시는 지지 않는다”,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등 경제주권을 찾고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제2의 광복을 위해 싸우는 광복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좀 더 미리 알고 대처하였더라면 정치적으로 풀 수 있었던 일들이지만 지금의 한일관계는 마치 마추 달리는 열차와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일본의 수출통제가 철회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지만 한·일 두 나라 국민의 갈등으로 증폭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라디아서 5:1)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물질과 권력과 기울어진 인간 철학이나 사상의 종의 멍에를 메지 않는 우리 민족, 특히 우리 그



세기총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하여 2019년 위기의 8월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누리는 역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과 평안이 각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 8,000만 모든 민족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단법인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

세여리 미국지부 구국기도회

OC · LA · 북서부 지부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대표 신소피아 목사, 이하 세여리) 미국지부 구국기도회가 지난달 28일 오후 5시 Ang교회(담임 이명희 목사)에서 열렸다. 주자와 코디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에서 심민숙 섭 코디가 찬양인도를, 안현숙 코디가 대표기도를, 신소피아 목사가 ‘생명을 사랑하는 세여리 되자’(마가복음 8:36-37) 제

목의 말씀 선포를, 세라류 목사가 헌금기도를 한 후 주재임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명희 코디 인도로 시작된 2부 기도회에서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회개기도(주재임목사) ▲가정의 회복과 차세대를 위한 기도(이순애 목사) ▲대한민국과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잘못된 이념이 무너지도록(우순희 목사) ▲교회의 부흥과 동성애 합법이 무너지도록(이명희 코디) ▲반기독교 세력의 붕괴를 위해(이슬람세력,

힌두, 불교, 샤머니즘 등), 이단(신천지, 통일교, 안식교)과 사이버 적결을 위해(안현숙 코디) ▲이스라엘 회복과 열방선교와 선교사들(김혜한 선교사) ▲세여리기도운동 확산과 신소피아 목사의 성령충만과 강권함, 27기 40개 기도방의 기적, 치유, OC, LA, 북서부지역의 부흥을 위해, 제2회 세여리 컨퍼런스를 위해-리더십훈련과 공동체 훈련(임창숙 섭 코디) 등 각각의 주제로 진행됐다.

이순애 객원기자



남태평양 ‘2019 평화기념식’, 설교자로 류광수 목사 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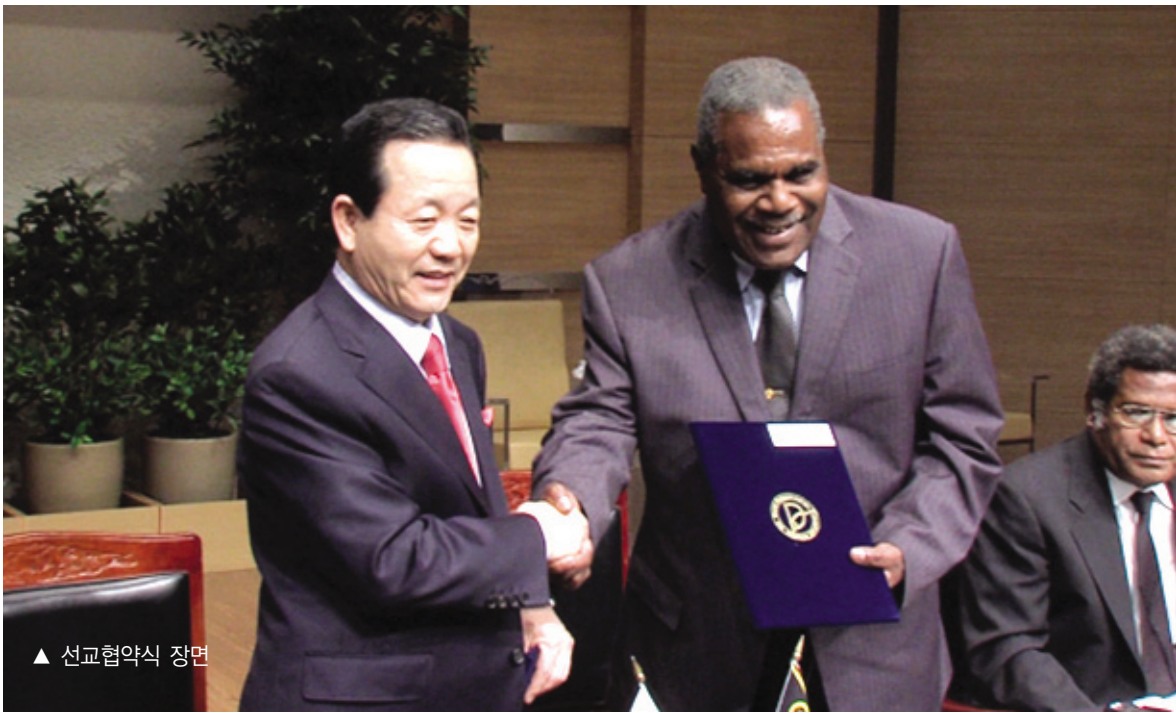
23개국 국가수반 등 참석, 13일 바누아투 컨벤션센터에서 열려

오는 8월 13일 바누아투 컨벤션센터에서 남태평양 14개국 국가수반과 8개국 외교사절 등 23개국이 참가하는 “2019 평화기념식(2019 Sustainable peace ceremony)”에 기념식 예배 설교자로 류광수 목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 이사장, 이하 전도협회)를 초청했다. 전도협회는 이를 계기로 남태평양 주변국에 복음 전도운동의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19 평화기념식’은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지속가능한 평화를 다짐하는 행사이다. 바누아투 정부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호주와 하와이, 솔로몬제도, 통가 등 남태평양 14개국 국가수반이 참석하고 또 중국과 프랑스, 일본, 영국, 뉴질랜드 등 8개국 외교 사절단이 참석한 다.

또 국내 현직 국회의원인 국회부의장 주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참석해 국회차원의 교류를 강화한다.

바누아투 정부는 기념식 예배 설교자로 류광수 목사를 초청 배



▲ 선교협약식 장면

경에 대해 전도협회가 수년 동안 바누아투 선교는 물론 교육, 의료, 식수 부분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에 대하여 감사의 뜻으로 국가행사 설교자로 초청한다고 밝혔다.

또 평화기념식에 앞선 12일에는 국가수반들과 함께 하는 SDG 컨퍼런스가 열리며, 이 자리에서 류광수 목사가 국가수반들과 남태평양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바누아투 장로교 총회는 전도협회가 건전한 신학사상을 바탕으로 바른 선교운동을 펼치는 모델적인 선교단체로 평가하고 선교협약을 맺은바 있으며 공영 방송국을 통해 류광수 목사의 설교를 정기적으로 방영하고 있다.

전도협회는 그동안 바누아투 태풍피해 복구지원과, 바누아투에 2016년도에 유치원 건립(혜륜유치원)과 운영 시스템을 지원하였다. 최근에는 바누아투 정부와 함께 초등학교를 건립기로 하고, 국내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착공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일보 윤광식 기자

21C 목회성장연구소 전국 목회자 세미나 초청

21C 목회성장연구소 소장 문화평 목사는 오는 8월 26일(월)-8월 29일(목)까지 전국 목회자 세미나를 개최하며 대상은 목사, 사모, 전도사이며 “주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소서”(대하 7:14) 라는 주제로 강연 흥천군 서면 한치골길 소재 대명리조트 비발디파크(메이플동) 세미나를 갖는다.

21C 목회성장연구소 소장 문화평 목사는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슬픔과 고통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를 향한 비판은 하늘까지 치솟을 정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실망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존경받는 지도자의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느 뜻있는 분은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비극, 이것이 우리 시대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 목회자로 서 있습니다. 한없이 쇠락의 길로 가고 있는 한국교회의 뼈아픈 모습을 그

냥 지켜보고만 있었습니까?

생존 게임에 급급한 목회, 안주하는 것으로 안도하는 목회에 머물렀었습니까?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자인 “John MacArthur”목사는 현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엄중한 마지막 경고를 증거하면서 “교회여 회개하라” “목회자여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결미한 마음과 자세로 주 앞에 함께 힘써 모입니다. 우리가 그리하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지라”(대하 7:14).

이번 세미나는 고신대 김순성 박사, 장신대 정장복 박사, 침신대 김운용 목사, 문화평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선다.



국제에녹부흥사회 제10주년 정기총회

2019년도 표어 :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는 부흥사회”(행 9:31)
성령으로 뜨겁게! 기도로 강하게! 믿음으로 새롭게!

일시 : 2019년 9월 30일(오전 11시)
장소 : 부천 중흥중앙교회(부총재 김성수 목사)

총대표회장	고문	고문	자문(예정)	총재	수석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부총재	수석상임회장	상임회장
박영민 목사	정기남 목사	이환호 목사	배정희 목사	이희희 목사	임순학 목사	곽애스드 목사	윤동훈 목사	최동준 목사	김성수 목사	김혜중 목사	몰주만 목사
◆ 국제부 위사진 외 회원명단 ◆ 파라과이대표 :곽성건 선교사, 일본대표 :이영자 선교사, 파키스탄대표 :Mark Hardy 선교사, 실무회장 :전미리 목사, 감장측 목사 :공동회장 :이현주 목사, 황선영 목사, 김희영 목사, 백익석 목사, 조명희 목사, 우사람 목사, 김연화 강도사 / 회원 : 이호성 목사, 김수자 목사, 김성호 목사, 최건숙 목사, 이영미 목사, 정현영 목사, 김선우 목사, 유한나 목사, 김희자 목사, 한상욱 목사, 장중우 목사											
국제에녹부흥사회 회원가입및집회요청 문의:010-8291-8081(사무총장이선한목사)											
◆ 집회 일정 ◆				● 매주(목) 저녁 7시				● 불교교회(박영민 목사 시무) 목요 신유집회			
● 7월 31일(수)-8월 2일(금) 국제에녹부흥사회수련회(강화주문도)				● 8월 4일(주일-7일(수) 침복단교회(우사람목사)				● 9월 2일(월)-5일(목) 보령다나델기도원(강종숙목사)			
● 8월 12일(월)-15일(목) 당진반촌새동교회(고관능목사)				● 9월 15일(주일)-18일(수) 천안교회(김성호목사)				● 10월 6일(주일)-9일(수) 영광교회(이선한 목사)			
● 9월 20일(주일)-23일(수)화성애환교회(도원환목사)				● 10월 20일(주일)-23일(수)화성애환교회(도원환목사)				● 11월 3일(주일)-6일(수) 믿음교회(배정희 목사)			
● 11월 7일(주일)-충주 다메섹기도원(이승우 목사)											

사무실 : 인천광역시 남구 능해길5, (송의동) 등불교회

■ **靑松 건강칼럼 (703) 남성과 식도암**

식도암(食道癌)

지난주에 고등학교 동창이 식도암(食道癌)으로 별세했다. 지난해 9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집에서 요양을 하였으며, 상태가 호전되어 올해 11월에 명동 로얄호텔에서 동창회가 주최하는 팔순(八旬)잔치에 참석하리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부음을 접하고 인생무상(人生無常)을 실감했다. 질병의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에서 영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앙암등록본부가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에서 229,180건의 암이 새로이 발생했으며, 그중 식도암은 2,499건(남자 2,245건, 여자 254건)으로 전체 암 발생의 1.1%를 차지했다. 남녀의 성비는 8.8:1로 남자에게 더 많이 발생했다.

식도암의 조직학적 형태에 따른 발생 빈도는 2,499건 가운데 암종(carcinoma)이 2,380건(95.2%), 육종(sarcoma)이 5건(0.2%), 기타 명시된 악성 신생물(other specified cancer) 14건(0.6%), 상세 불명의 악성 신생물(unspecified cancer) 100건(4.0%)이다. 암종 중에서는 편평상피세포암(squamous cell carcinoma)이 2,247건(89.9%), 선암(adenocarcinoma)이 71건(2.8%), 기타 명시된 암이 31건(1.2%), 상세 불명암이 31건(1.2%)이다.

식도암(esophageal cancer)이란 식도(食道)에 생긴 악성종양으로 식도의 점막, 점막하층, 근육층 등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60대 이상의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식도암은 위치에 따라 경부(頸部)식도암, 흉부(胸部)식도암, 위-식도 연결부위 암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암의 조직형에 따라 편평상피세포암, 선암, 평활근 육종, 횡문근 육종, 림프종, 흑색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식도(食道)는 인두(咽喉)와 위(胃)를 연결하는 기관으로, 길이는 약 24-33cm, 너비는 2-3cm, 식도 벽의 두께는 약 4mm 정도이다. 식도는 흉강(胸腔) 내에서 척추의 앞쪽, 기관(氣管)과 심장의 뒤쪽, 대동맥의 옆쪽, 양쪽 폐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해부학적으로 식도는 다른 소화기관과 달리 장기의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장막(漿膜)이 없어 암이 발생하면 비교적 쉽게 식도의 외벽을 뚫고 주위 장기를 침범할 수 있다. 또한 식도의 점막하층에는 림프관과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암세포가 림프관이나 혈관을 타고 고 식도주위의 림프절로 전이되거나 원



靑松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아시아記者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지저스타임즈 논설위원 고문

격 전이(轉移)가 되기 쉽다.

식도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음식이 위장으로 넘어가는 통로로서 관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 식도는 인두에서 삼킨 음식물을 연하운동 및 연동운동으로 위장으로 내려 보내는 기능을 한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괄약근이 있어 음식물의 역류를 방지한다.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통로이므로 식도암의 증상은 주로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삼킬 때 발생하는 통증이다. 그러나 식도는 잘 늘어나므로 암이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미 다른 곳으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 식도암은 건강 검진 시에 시행하는 내시경 등의 검사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식도암이 진행되어 식도내강이 좁아지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증상인 연하(嚥下)곤란이 나타난다. 처음에는 고기, 작두기 등 고형음식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죽, 미음 등 유동식을 넘길 때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나중에는 물조차 삼킬 수 없게 된다. 식도암의 연하곤란은 만성적으로 계속 진행되며 호전되지 않는다. 이에 식사량도 줄게 되어 심한 체중감소와 영양실조가 온다.

연하통(嚥下痛, odynophagia)은 연하곤란(삼킴곤란, dysphagia)보다 더물지만 식도암의 주요한 증상이다. 연하통은 지속적이고 둔한 통증이며, 등으로 뻗치는 듯한 증상이 흔하다. 심한 지속성 통증이 있으면 전이를 의심해야 한다. 구토,

출혈, 선 목소리, 만성 기침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음식물, 이물질 등이 기도로 잘못 흡인되어 야기되는 흡인성 폐렴(aspiration pneumonia)이 발생할 수 있다.

식도암 진단을 위하여 내시경 검사, 바륨(Barium)식도조영술, 컴퓨터단층촬영(CT), 내시경 초음파 등을 실시한다. 내시경은 식도암이 의심될 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이다. 내시경은 직접 식도 점막을 관찰하므로 초기 식도암에서 나타나는 용기되지 않은 병적 변화, 색조상의 변화만 있는 병리적 변화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나 확진을 위해서는 조직검사가 필수적이다.

바륨식도조영술은 종양의 위치, 길이, 주위 구조물과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종양의 정확한 위치 파악, 협착의 정도 파악, 병적인 변화의 대칭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스텐트(인공관) 등 완화 목적의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된다. 컴퓨터단층촬영(CT)은 식도암의 진행 단계 결정과 절제 가능성 파악에 필요하다.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CT)검사는 기존의 PET나 CT보다는 진단률이 높으며 암이 전이된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내시경 초음파는 식도 점막부터 외벽까지 식도 벽을 층별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병적인 변화가 식도 벽에 어느 정도까지 침입했는지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내시경 초음파 검사로 수술전 병의 진행 단계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용이해지고, 경과 및 치료 결과를 추정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한 데에도 도움이 된다.

식도암 치료는 암의 병리적 증상이 식도에 국한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암이 점막까지만 머무른 경우에는 내시경에 의한 점막절제(EMR)를 실시할 수도 있다. 식도암은 조기발견이 치료성과를 향상시키는 열쇠라고 할 수 있다. 식도암 수술후의 생존율은 보고하는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50%의 5년 생존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광범위한 절제가 쉽지 않고, 암이 처음 진단되었을 때 이미 주변 조직으로 퍼져있거나 원격 전이가 발생한 경우가 많다. 이에 최근에는 식도암의 치료를 수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식도절제와 항암화학요법 및 방사선 치료를 함께 적용하는 병합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환자의 전신 상태 및 여러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여 치료 방침을 적절하게 선택해야 한다.

식도암 환자가 주의해야 할 음식 및 식사법은 다음과 같다. ▲모든 음식물은 소화되기 쉽게 익히고 부드럽게 해서

먹으며, 맵고 짭 음식은 피한다. ▲고단 백 음식(고기, 생선, 두부, 계란 등)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다. ▲무기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는 수술 후 2주일부터 충분히 씹어서 먹는다. ▲커피, 콜라, 사이다 등의 탄산음료는 약 6개월간 피한다. ▲식사 후 30분간은 걷기 운동을 한다. ▲차가운 음식은 피하고 모든 음식은 상온으로 하여 먹는다. ▲과식을 할 경우 빈맥, 호흡곤란 등이 증상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수술 후 2개월까지는 조금씩 자주 먹는다.

식도암을 예방하기 위하여 ▲술을 절제하고, ▲담배를 끊고, ▲균형잡힌 식생활을 하며, ▲탄 음식, 햄 소시지 같은 질산염이 많이 포함된 음식을 피한다. 만약 위-식도 역류질환, 바레트 식도(Barrett's esophagus)와 같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식도암의 조기검진 방법은 식도 내시경 및 초음파와 내시경이 최선의 방법이다. 흡연이나 음주를 많이 한 55세 이상인 사람은 1년에 한번 이상 검진을 하는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음주 관련 기준을 높여 '암 예방 수칙'을 2016년에 개정했다. 기존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돼 있는 음주 관련 항목을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변경했다. 유럽연합(EU)도 기존에는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하던 암 예방 권고를 2014년 '암 예방을 위해서 음주하지 말 것'으로 고쳤다.

우리나라의 개정된 '암 예방 수칙' 10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담배를 피우지 말고,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도 피하기.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다채로운 식단으로 균형 잡힌 식사하기. ▲음식을 짜지 않게 먹고, 탄 음식 먹지 않기. ▲암 예방을 위해서 하루 한 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 ▲주 5회 이상, 하루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로 걷거나 운동하기. ▲자신의 체격에 맞는 건강 체중 유지하기. ▲예방접종 지침에 따라 B형 간염과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받기. ▲성 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안전한 성생활 하기. ▲발암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장에서 안전 보건 수칙 지키기. ▲암 조기 검진 지침에 따라 검진을 빠짐없이 받기.

癌은 3분의 1은 예방활동 실천으로 예방할 수 있고, 3분의 1은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로 완치할 수 있으며, 나머지 3분의 1도 적절한 치료를 하면 완화가 가능하다. 암 환자는 치료를 통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면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신념에 찬 생활과 긍정적인 자세를 갖어야 한다.

매년 여름에 한국파인트리클럽(Pine Tree Club of Korea: 창립자 박명운 박사)이 주최하는 하계수련회(Summer Camp)가 열린다. 올해는 서울파인트리클럽이 주관하여 경기도 가평에서 7월 19-21일, 2박 3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금년에는 수도권을 대표하여 서울파인트리클럽, 영남권 대구파인트리클럽, 그리고 호남권 광주파인트리클럽 임원(대학생 및 대학졸업생) 70여명이 참석했다.

회장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파인트리클럽: 회장 이운유(서울여대 경영학과 16학번), 부회장 김현우(인하대 토목공학과 15학번), 대구파인트리클럽: 회장 강태영(영남대 기계공학부 15학번), 부회장 강미주(영남대 컴퓨터공

위시하여 서울대 이장호, 최종태, 민상기 명예교수 등 대학교수도 100명 이상이 있다.

필자는 서울시니어파인트리클럽 회장 겸 서울파인트리클럽 이사장인 허우영(고려대 정치학과 85학번) GS칼텍스주식회사 운영부문 상무(Vice President/Logistics)와 함께 가평을 방문하여 하계수련회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클럽로그와 "PINE TREE CLUB SUMMER CAMP SEOUL 2019"이 새겨진 'T-shirt'를 캠프 참석자들에게 전달했다.

PTC Summer Camp는 1962년 8월에 서울파인트리클럽과 대구파인트리클럽이 공동으로 경북 포항 송도해수욕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초창기에는 주로 부산지역(해운대, 광안리, 송정, 일광)에

2019 PTC Summer Camp



학과 18학번), 광주파인트리클럽: 회장 광병곤(조선대 경제학과 16학번), 부회장 서재은(조선대 경제학과 16학번).

1958년 11월 서울에서 대학생 12명이 모여 창립한 파인트리클럽(PTC)을 필자가 1961년에 인쇄양성·사회봉사·국제친선을 목표로 확대개편하여 한국파인트리클럽을 발족했다. 지난 60년 동안 서울·대구·부산·광주파인트리클럽에서 약 1만2천명 회원을 배출하여 국내 여러분야를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인사에는 강석희(서울PTC, 미국 어바인시

서 개최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서울·대구·부산·광주파인트리클럽 순으로 순차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 있다. 1970-80년대에는 고등학생(Junior Member), 대학생(Regular Member), 대학졸업생(Senior Member) 등이 함께 모여 하계수련회를 진행했다.

60년 역사를 지닌 파인트리클럽에는 'PTC Couple'이 여러명 있다. 예를 들면, 서울PTC 허우영 회원(현재 클럽 이사장)은 김신우 회원과 결혼하였으며, 파년도 클럽회원으로 활동했다. 광주PTC 한기영 회원(조선대 법학과 14학번)의 부모(한추만/ 조선대 84학번, 건국사·김미진/ 전남대 87학번, 공무원)도 광주시니어파인트리클럽 회원이다.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표어 : **좋은만남 행복만성도 (신 33:29절)**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여목성장학술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원목원
- 행복샘전인치유센터 원장
- 동부노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학병원에서 퇴원 장래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후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쏘 예 배 시 간 안 내 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시 동구 송로로 16길 11(신전동)
동대구 반도유보라 상가(2층)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신 입 생 모 집 요 강



김창숙 목사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은
세계로신학학술원과 학점교류를 통해 세계로신학술원
학장명의로 졸업장 수여 함.

◆ 과점수로 후 세계로신학학술원을 통해
연장수업으로 (USA)Cumberland University 학위 취득이 가능함.

과정 : 찬양, 율동, 워십, 한국무용
수업요일 : 매주 월, 수, 금

장 소 : 꾸미오리선교센터(경기도 양주시 고암동182-3)
문 의 : H.P 010-4137-0796 (김창숙 목사)



세계로신학학술원 · 꾸미오리기독무용신학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당회장 정대성 목사

2019 동여
성장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찬양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 예배 : 오후 7:30
- 금요철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충남성시화운동본부

저출산 극복 출산운동과 생명존중운동 전개 결의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가 저출산 극복과 생명존중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충남 보령 대천중앙교회(담임목사 최태순 목사)에서 임원 및 시군 본부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표회장 최태순 목사는 이날 모임에서 마가복음 12장 28절-31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에서 소통과 연합을 강조했다.

최 목사는 “요즘 우리나라 격정하는 소리를 듣는다. 정치나 교계도 갈등 구조가 계속 되고 있다. 이는 소통과 연합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너는 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연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회의에서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가 최근 본부 사역을 소개했다. 김 목사는 “지난해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출산을 0.98퍼센트 시대에 지난 6월 3일에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회총연합회와 저출산 극복 포럼을 열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상임대표회장 이수훈 목사가 당진동일교회에서 출산과 교육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저는 한국교회 실천방안과 정부에 10가지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 17일 서울 동부지역 크리스천 리더들이 참여하는

동부리더스조찬기도회를 시작했다. 지난 7월 16일 2차 조찬기도회를 했다.”고 보고하고 “또한 자살예방, 낙태예방, 생명안전, 생명돌봄 등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청원운동과 한국교회 생명존중주일 제정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상임회장 오종철 목사(홍성제일장로교회)는 “충남성시화운동본부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운동과 생명존중운동을 전개하자. 이 운동은 교회들이 마땅히 할 일”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

지 당진동일교회에서 열릴 예정인 2019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에 충남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이 되어 충남의 시군 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해외에서 참가하는 목회자들의 주일 강단 교류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와 해외에서 참가하는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에게 충남의 기독교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 최초로 세워진 공주기독교박물관과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에 세워진 서천 마량진 한국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 등을 추천했다.

2019충남당진국제성시화대회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가 주최하고 충남성시화운동본부가 주관한다. 국내 전국 시군 성시화운동본부 지도자들과 미국, 우크라이나, 체코, 아이티, 이스라엘, 스위스 등 해외에서 성시화운동 지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얼음생수 30,000병 기증”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회장 구자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8월 중순까지 서울남부구치소에 얼음 생수 3만개를 기증하여 사람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기부는 혹서기를 맞이하여 수용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서울남부구치소 교정협의회에서 마련했으며, 이번 얼음생수를 7-8월 혹서기 동안 전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구자관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얼음 생수 지급이 수용자들에게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하여 무더위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남부구치소 소장은 “도

움을 주신 교정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용자 교정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기독교선교 후원 전문단체 지미션, 저소득 목회자 후원 캠페인 시작

기독교 선교후원 전문단체 지미션(대표 박종관)은 어려움에 놓인 저소득 목회자 가정을 위한 후원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미션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목회자, 선교사, 성도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으며, 최근 신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며 ‘금보다 귀한 세 쌍둥이를 돌보고 있는 김필성 목사’의 후원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필성 목사는 사역 5년차에 갑자기 찾아온 신부전증으로 사역을 내려놓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아내는 의료비와 양육부담으로 결국 가족의 곁을 떠났고, 김 목사 홀로 세 쌍둥이를 돌보고 있다. 현재는 김 목사의 근육이 모두 빠져 더 이상 아이들을 안을 수 없어 재활치료비와 세쌍둥이의 생계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미션의 박종관 대표는 “국민연금연구원의 통계(2017년 기준)

에 따르면 목회자 중 70%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며 “특히 건강상의 어려움이 나, 장애, 사고 등으로 삶의 위협에 처한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미션은 홈페이지(www.gmission.or.kr)를 통해 김필성 목사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으며, 그 외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목회자 및 성도, 선교사, 장애인선교 등의 사역 이야기도 볼 수 있다.



기독교 선교후원 전문단체 지미션은 한국이 2만 5천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선교강국이지만, 성도들이 선교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성도와 선교사를 연결하고 돕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난 6월부터 성도가 기도, 물품, 후원 등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선교후원 전문사이트 ‘지미션’을 오픈했으며, 국내외 도움이 필요한 선교사역을 소개하고 있다.

(후원및지원문의)

연락처 02-6334-0303, 이메일 gmission@gmission.or.kr, 홈페이지 www.gmission.or.kr

충신대 총장 이재서 박사 초청 간담회

신뢰회복과 윤리경영에 앞장설 터



미주복음방송(사장 이영선 목사)주관 ‘충신대학교 신임총장 이재서 박사 초청 기자 간담회’가 지난 30일 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열렸다.

충신대학교 총장 이재서 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부족함이 많다. 뒤를 돌아보니 기적적으로 총장에 취임했다는 생각이 든다. 총장에 취임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된 경우는 이번이 학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은 물론 학교 내에서도 기대가 크다. 그동안 학내 분류로 인하여 헤쳐나가야 할 산들이 많이 있지만 능히 모든 것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개혁’과 ‘회합’ 중 어느 것에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총장은 “개혁과 회합이 공존해야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학교의 구조적 방향성과 신학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개혁을 바탕으로한 현장중심의 신학 즉 칼빈주의를 계승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동안 학교 내부적으로

사회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추진을 못해왔다. 앞으로 총장 재임기간 동안 화합을 전제로 소신껏 바르게 일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를 제대로 남을 수 있도록 총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제가 총장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밀알선교단에 몸담아왔던 사람으로 누가 되기 때문에 총장직을 잘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경영을 바르게 하고자 한다. 어떤 일도 사적인 이해관계로 일을 하지 않겠다. 그동안 교단과 교회성도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잃어버린 학교의 신뢰회복과 윤리경영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현욱 기자

광복74주년 기념

장애인문화예술 공유의 장 2019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 올릉도·독도 개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이사장 최광열)는 오는 8월12일부터 14일까지 2019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개최한다. 본 행사는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국심 성취와 다양한 문화예술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문화를 공유하고 감동을 나누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에서는 장애인·비장애인 약 400여명이 참석

한다.

주요 프로그램에는 올릉도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문화예술축제와 애국심을 기리고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독도공원이 마련되어진다. 이

외에 올릉도 독도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중앙회(이사장 최광열)에서는 앞으로 도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를 통해 장



▲ 2019년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과 비장애인 400명 참가

애인이 주체가 되어 장애인문화예술의 비전을 공유하고 네트워크형성의

장과 삶의 영역을 능동적으로 넓혀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진리총회 제104회 정기총회 공고

주제 : 장자의 복을 받는 총회가 되자 (히 12:23)

총회장

총 회

부 회

총 회

부 회

회 회

부 회

총 무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박민규 목사 (천성교회)

전상철 목사 (새여루살렘교회)

김은임 목사 (감사교회)

유순옥 목사 (조예교정선교회)

김정미 목사 (새여루살렘교회)

김전환 목사 (주사랑교회)

정요한 목사 (꿈의교회)

본 총회는 마지막 때 뜻을 같이 할 교회 및 교단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 일시 : 2019년 9월 20일(금) 오전 11시 개회
- 장소 : 주사랑교회(장한국 목사 시무)

진리총회 :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로10, 7층 대림프라자 고호5 Tel 031-424-7612
총회장 : 장한국 목사 H.P 010-4436-7060, 서기 : 박민규 목사 010-9621-9627

• **요한계시록 7장 강해(47)**

대환란을 왜 7년으로 보는가?

〈지나호 이어서...〉

*나무- 마21:19에 주께서 열매를 찾으셨으나 일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은 신자를 가리킵니다. 영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도 없고 세상의 복을 좋아하고 시원한 그늘을 좋아하는 자는 잎이 무성한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이와같이 땅, 바다, 나무는 순교할 자로 녹명되지 아니한 자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이 아직 땅·바다·나무에 속해 있어서 환란의 바람을 불잡고 있는 것은 아닐까? 교역자, 장로, 권사, 집사일지라도 또 경류가 아무리 깊어도 앞서 말한 땅·바다·나무 같은 신앙인 경우, 철 한 환란이 닥치면 이들이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순교할 자로 믿음이 녹명돼 있으면 환란 날에 믿음이 떨어져 타락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는 순교자들의 믿음이 보장된 표로서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되어졌기 때문입니다. 환란의 바람은 이미 순교할 자로 녹명된 자들을 마치 보리타작해서 거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3절)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우리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장을 가진 천사를 가리키고, 이 천사에 의해 인침 받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우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서로 차별이 없이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이 같나요? 첫 번째, 천사는 하늘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것,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것을 잘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늘에서 온 것을 분명히 알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부모, 형제, 친척관계 등 육적인 것에 매어 있으면 본문의 ‘우리’에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늘에서 온 천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말하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만 그대로 감당합니다. 이것이 본문 3절 ‘우리가’의 천사이고 이 천사가 이마에 인치는 하나님의 종들 역시 위와 같은 사상과 일치된 종들임을 계시한 말씀입니다. 이마는 소속·사상을 상징합니다. 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침 받는 종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불구덩이라도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고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마에 인치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위경에 처할 때에 이미 주님의 것이 되어져 있어서 주님이 이끄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예정진리총회 총회장

시는 대로 그냥 끌려가듯이 따라가는 자가 되면 이는 그가 주님께 속한 자로 그 소속이 분명해 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인침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속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사상이 주님과 일치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보낸 천사를 통해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쳐서 주님은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된다’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퍼 놓인 작은 책을 먹어야 하며 또 꾸준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전복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인장으로 표시 받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 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모든 신자들, 즉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 가운데서 십사만 사천 명에게 인을 쳤다는 말씀입니다. 혹자가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십사만 사천 명은 구원 받은 총수를 상징적으로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본문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중에서 골라 뽑은 숫자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뽑기 전의 모든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는 오늘날 구약의 12지파는 아닙니다. 교회의 교인들이 ‘모든 지파’에 해당됩니다.

5절)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그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6절)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납탈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므낫세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7절) 시므온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잇사갈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8절) 스불론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요셉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5절-8절의 12지파는 구약의 12지파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12지파는 야곱의 첫아들 르우벤 지파부터 시작하는데 본문의 12지파는 순서가 유다 지파부터 시작합니다. 또 구약의 12지파에 속한 단 지파, 에프라임 지파가 본문에는 제외되고 그 대신 구약의 12지파 총수에 들지 않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가 포함됐습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바쳐진 지파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장자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 수에 맞는 레위 지파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기업이 없이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므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로 일했습니다.

또한 계시록은 구약이 아닌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는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교회에 주시는 야고보서 1:1에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열두 지파’입니다. 이 열두 지파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영적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롬 2:28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5-8절에 각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씩 뽑은 열두 지파는 예수 믿는 교회요, 영적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중에서 십사만 사천 명을 뽑았다는 말씀입니다. 귀신 쫓는 베뢰아, K00 목사가 주장하기를 ‘예수 안 믿는 이스라엘에서 십사만 사천 명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귀신의 말입니다. 십사만 사천 명은 표면적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환란의 바람이 불 때가 이미 지났는데도 딱 붙잡게 하셨습니다. 이는 환란 날에 쓰임 받을 종들의 수, 즉 십사만 사천 명을 다 채

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를 어디에서 채우시나요? 바로 금측대교회에서 그 종들의 수를 채우는 역사가 계시록 2·3장에 나옵니다. 이미 순교신앙에 올라 선 자 중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합당하다고 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 그들의 이마에 인치는 것이고, 그들을 환란 날에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전혀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인침 받은 하나님의 종 십사만 사천 명은 환란 날에 일을 하기 위해 세우지만 그 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100% 순교를 하게 되므로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먼저 서 있는 것이 기본 조건으로서 중요함입니다. 순교의 믿음에 서면 그와 동시에 인침 받는 것도 따르게 되면서 숫자가 채워지고 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본분 말씀이 무슨 내용이며 무슨 뜻인지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각자가 장래에 그 자리에 참여해서 찬송할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말씀이므로 절제절명의 내용으로 과제입니다. 본문 9-12절까지의 key는 제6:11절입니다.

“그러자 그들 각자에게 긴 흰 옷을 주시면서,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제6:11)

제6:11절은 그들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순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료 종’이 누구인가요? 이미 우리가 상고한대로 제7:1-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종, 즉 십사만 사천 명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제6:11에 ‘그들의 동료 종’입니다. 이것이 비밀이며 오늘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령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 십사만 사천 명은 곧바로 인 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인 순교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그다음

하나님이 보시는 더 큰 관점과 기준에 따라서 합당한 자에게 그의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수는 정확히 십사만 사천 명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음과 생각으로 여유로운 것은 환란 날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가 십사만 사천일 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믿음으로 그 종의 수에 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또한 본문 9-12절의 내용은 제6-11절의 ‘그들의 형제’에 해당되는 말씀입니

다. 즉 신약 은혜시대와 구약시대에 걸쳐 먼저 순교당한 자들과 똑같이 환란 날에 순교당할 성도들이 ‘그들의 형제’입니다. 죽임당하는 형제들의 수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제7:9)라고 표현했지만 채워지는 만수(滿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수가 있습니다. 즉 순교자의 명부에 등록된 수가 곧 제7:9 절의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입니다. 그 순교할 자의 수가 채워지면 은혜시대의 문이 닫힙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에 서 있냐요? 9절에 그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섰다고 했습니다. ‘보좌 앞과 어린양 앞’이 하늘인가요, 땅인가요? 하늘입니다.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이 구절을 예비처로 해석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비처는 하늘에 있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제12:14).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지진과 핵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비명횡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특별한 곳으로 예비하신 것이 곧 예비처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후 3년 반에 특별히 지켜주시면서 양육합니다. 현재 예비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예비처에서 보호양육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비처 성도를 비교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왜하면 예비처 성도들은 은혜시대 때 순교의 믿음에서 떨어진 자들로서 환란 날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리고 두 증인의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도받아 가는 곳이 예비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같은 기회를 주셔서 환란 날에 배도 하지 않고 휴거되어 재림 주님을 맞이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예비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비처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휴거되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에 더 잘못된 것을 더하여 휴거될 때 부활체가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비처에 있는 자들은 육신이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체가 되냐요? 여기에 더하여 부활체가 된 휴거성도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산다고 주장합니다. 주님은 부활한 자들은 천사들과 같아서 장가가지 아니하고 아이도 낳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를 믿지 않는 것이지요. 이러한 잘못된 교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목회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목사코너 -227-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주사랑교회 장한국 목사

예정진리 총회장/JTNTV 부이사장

(롬8:29-30) 오늘 말씀은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그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미리 아신 자들’이 첫 구원의 출발입니다. 이는 단지 인식한다는 것이 아니요, 미리 아신 자라 함은 하나님이 친히 그의 생명으로 낳으신 자들을 잘 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히2:11 “예수님과 우리가 한 본에게서 낳은바 됐으니 주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심같이 하나님이 낳으신 그의 소생들을 어찌 아시지 않겠는가? “여인이 자기 낳은 자식을 살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잊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기리라.”(사49:15-16) 이처럼 소중하고 영원히 잊지 않으시며 이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워 이룩하시는 분임을 ‘미리 아신 자’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낳으신 독생자는 나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시나 그 후 출생한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들, 즉 우리들은 마치 핏덩어리 같은 갓난아이 같아서 모든 면에서 연약하고 어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의 형상에 일치케 하시려고 미리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엡1:4-5 말씀같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할 것을 택하시고 이를 이루려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미리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즉 언제 예수 믿을 것과 세례 받을 것을, 언제 직분자로 세울 것 등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미리 예정하시고 이루십니다. “또 이는 많은 형제들 중에서 자기 아들을 첫 태생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장차 부활하여 아들의 자리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은 그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될 것을 계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부르시어 예수 믿게 하신 것이 부르심이요, 또 이들을 의롭게 하셨으니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시어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는 구원의 완성인 우리 몸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부활의 모습은 영화롭고 영광스런 몸을 입은 것이니 곧 먼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한 몸도 그분의 영광스런 몸같이 변화시키리라”(빌3:21)

또 여기서 “영화롭게 하셨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합니다. 왜요? 이는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 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 세계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과 하늘나라는 늘 빛이 빛나는 오직 하루만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 받아야 되지요 (할렐루야)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규필 목사
(총신대학 이사장)

동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기도회 오후 7시30분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시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전예희 목사

신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5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서동기 목사

소망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번지 현대아이파크 A상가 2층

H.P : 010-3342-7302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강대일 목사
(합동보수 총회장)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임상국 목사

천복복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재식 목사

풍성한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뱀배장터로4, 3층(신천동)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고성규 목사

다니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평안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북로 62-5(봉교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사증열 목사

예심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 예배 오후 7:00
금요발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장한국 목사
(신리총회장)

주사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대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30
새벽예배 새벽 5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경기도 의왕시 계원대학교로10, 701호(내수동)

홈페이지 http://jicn.kr ☎031)424-7621, H.P 010-4436-706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정민 목사

성서하나님의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오후 8:00
금요 기도회오후 9:00
2시 기도회매일(월-토)오후 2:00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 여름 타작마당 9 |

여름에 넘어지고 시험들어 교회 떠나면 끝장!

여름을 이긴 자 천국, 지는 자 지옥 멸망

〈지난호 이어서...〉

마지막 때에 육신을 이기지 못한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 성도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늘의 시민권을 박탈당한다. 롬 8:13=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고 했다. 육신을 이기라는 말씀이다. 그런데 육신을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는데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롬 8:7절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고 말씀하고 있으니, 큰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이것은 끝장인 것이다. 그 앞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면 한 사람도 살지 못한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 고 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원하고 있는데, 육신이 연약하다고 했다. 그래서 12절에서 바울은? ‘육신에 저서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고 했다.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다.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는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이나 목사인 저도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온전히 살길은 육신을 이기는 것이다. 자기를 이겨야 한다. 요한 계시록에도 예수님이 일곱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다. 이기는 자의 이야기이다.

1)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 2: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2)스머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 2:11=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3)페가모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 2:17=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이기는 자는 내가 감추어진 만사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또 그에게 흰 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4)두아티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 2:26=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요.’ 계 2:29=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5)사데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 3:5=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를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계 3:6=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이다

6)필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계 3:12=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의 이름,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계 3: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7)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에게 말씀하심은?

계 3:21=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이다.’ 여기 일곱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이다. 말세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다. 여기 이기는 자라야 하나님의 구원의 땀배에 합류하게 된다. 그렇지 못한 자들은 육신에게 저서 넘어진 자들인데 이들은 멸망할 것을 가리킨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다. 하나님과의 원수는 가루가 되어 흔적도 남릴 버릴 것이다. 그 날이 가깝다.

하나님은 스카라선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으로 엄히 경고하셨다. 속 13:9=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정기남 목사

편집인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다.’ 했다. 여기서 주님의 심판을 받아서 삼분의 이는 멸망이다. 그리고 삼분의 일이 남았는데 이들을 하나님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참 신자를 구별해 내신다는 하셨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환난의 불도가니 속에 집어 넣어보아야 알 수 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당하셨다.

마 4:1= ‘그때에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고 했다. 나와 여러분은 육신이 너무도 연약하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 원하는 길로 가야 한다. 시험을 영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창 22: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다. 시험이란 넘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시험받을 때에 넘어져서는 안 된다. 시험을 영으로 이기는 자랑스러운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지면 완전히 탈락이다. 아브라함은 창 12장에서 주의 말씀대로 주님을 믿음으로 믿고 따랐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창 22:1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 온다. 그 때에 아브라함은 만일 주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그리고 아들이삭을 주셨는데 그러나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주님을 위하여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으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바칠 수도 없고 내가 이삭과 잘 살겠으니 하나님! 이 일만은 포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더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다. 축복의 기회를 상실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창 22장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했다. 불순종하셨다는 생각도 없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했다.

〈다음호에 계속〉

Ⅲ.성막 영성과 구원 서정의 5단계 -31-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던 선지자들

〈지난호 이어서...〉

여기서 신성이라는 말은 영성이라는 말과 동일하다. 바로 주님은 인성과 영적, 영적인 성령으로서의 사역을 동시에 행하셨다. 이 일련의 사건들은 인간이 영적인 일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실존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려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결정체였음을 알아야 한다. 즉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하여 인간의 모습인 인성을 가지고 현현(나타남)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사역을 베푸신 것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다.

영체는 특수한 비가시적인 실체로서, 기체나 고체나 그 어떤 형태론도 마음대로 변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네 번밖에 없는데, 극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하나님은 인간이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영체로 활동하셨을 것이다. 영체로 오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보통 인간들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 실체를 보기도하고, 말하기도 하고, 만지고 느끼기도 한다.

그렇다면 특별한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성경은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즉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과 ‘보고 나서 믿는 믿음’이다. 즉 ‘영안으로 믿는 믿음’과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이다. 요 14 장 8-9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할때, 예수님은 그에게 ‘나를 보았거든 어찌 아버지를 보여 달라고 하느냐’고 하셨다. 즉 하나님 아들로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다.

1)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과 죄인들 때문에 가슴 아파

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던 것 같다. 그는 65세에 아들 므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림을 받아 올라갔다.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사함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 1:14-15)

2)모세와의 대면

모세가 어느 날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떨기나무가 타고 있었지만 불이 불지 않는 놀라운 광경을 보았다. 그 광경을 자세히 보려고 그곳으로 다가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 출애굽기 3장 4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불꽃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그 불꽃을 보며 대화한 것이다.

하나님은 또 5-6절에서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다. 모세 눈에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여도 불꽃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믿을 수밖에 없었기에 대화는 계속되었다.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나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다(13-14절). 또 출애굽기 33장 9-11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나누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는 내용이 나온다. ‘모세가 회막문에 들어갈 때에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나.....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할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였다.

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당신만 선지자냐?’ 당신만 하나님 음성을 듣느냐? 우리도 음성을 듣고 대화한다’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비방할 때, 민수기 12장 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와 형상을 보겠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고 하시며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셨다.

하나님은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더 중히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다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대화는 하지만, 모세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대면하는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다.

3)다윗과 대면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 뜻대로 살며, 그분을 대면하며 살았던 인물이 바로 다윗 왕이다. 다윗 왕이야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 뜻대로 살다간,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행 13:22)라고 칭찬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예수가 탄생하셨다. 그럼 이렇게 훌륭한 다윗왕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왔는지 살펴보자.

〈다음호에 계속〉

❖인터넷에서 위의 강의를 다 보실 수 있음(http://jtnv.kr http://cpj.kr)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예수패밀리처치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5길 42 원앙마을 부영아파트 116동 206호
H.P 010-8268-0091, 010-3710-911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주사랑교회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홍성제일교회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일예배 저녁 7시30분

금천시온교회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1부 오전 11시
주일 2부 오후 2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010-4320-1507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벤엘중앙교회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

주능력교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통급판정-1급 ~3급자 환영)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641-0687 H.P 010-7580-1004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강릉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전원중앙교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이로75번길 30-5
☎(032)321-9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일에배안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사랑의교회

한경총 사무총장
사도영성신학연구원 원장
서울시 구로구 개봉3동 370-40
☎(02)583-1955 H.P:010-7585-1955

조예 교정선교회



조예/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청송교도소
청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속(직업훈련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한교연 제8-5차 긴급 임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8.15 기념성회 및 특별기도회 개최 방안 논의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은 지난 7월 29일(월) 오후 1시 군포제일교회 목양실에서 제8-5차 긴급 임원회를 열고 한국교회 8.15 기념성회 개최와 재단법인 한국기독교기념관 건립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임원회는 남북 및 한일 관계 갈등으로 나라와 위기에 처한 이때에 8.15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한국교회가 하나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힘써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뜻을 같이하는 기관 단체들과 함께 성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또한 신광준 목사(한국교회 비상특별기도회 추진위원장)로부터 1차 비상특별기도회에 이어 시작된 2차 특별기도회 준비사항을 보고받고 8월 5일(월)과 9월 2일(월)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한교연 주관으로 진행될



10시간 릴레이 특별기도회 강사진 6명을 확정하는 한편 김영진 목사(민족통일선교협회 사무총장)를 특별기도회 추진위원으로 추가 임명하기로 했다.

제2차 한국교회 특별기도회 오산리기도원 집회는 8월5일 10:30 최명우 목사(순복음강남교회), 14:30 신광준 목사(추진위원장), 19:30 권태진 목사(대표회장)가, 9월 2일은 10:30 홍정자 목사(진리총회장), 14:30 윤호균 목사(화광

교회), 19:30 박만수 목사(개혁개신 총회장)를 강사로 10시간 릴레이로 진행된다.

임원회는 또한 한국교회 본질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한국교회 특별기도회를 내년 6월까지 1년간 연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하고, 한국교회가 교파를 초월해 동참토록 회원교단 단체는 물론 전 교단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1.한국교회 본질회복과 삼합(화합 연합 통합)을 위

해 2.대한민국의 자유 수호와 복음통일을 위해 3.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자유 수호를 위해 4.국가 안보 경제 사회 바른 역사관 수호를 위해 5.군건한 한미동맹과 한일 경제 갈등 해소를 위해 6.교회 고유권한 침해 중지 및 반인륜적 교육·제도의 폐지를 위해 등 공동의 기도제목을 공유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는 이날 임원회에 오는 8월 19일부터 미국 LA 열리는 미기총 총회에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와 사무총장 최귀수 목사 등 6~7명의 임원이 공식 초청받아 참가하기로 했으며, 올 11월초 인도 뱅갈루루에서 개최되는 인도 목회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목회자세미나 개최 추진 일정을 보고했다. 임원회는 또한 내년 3월경 한교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스라엘 이집트 등 성지순례를 진행토록 허락했다.

김하나 목사, 명성교회 담임 청빙 무효!

총회 재판국, 8월5일 마라톤 회의 끝에 본심 판결 취소 결정

지난 8월 5일 자정이 임박하기까지 긴 토론 끝에 '중재하자' 결론, 총회 재판국의 바른 판결에 일제히 환영했다. 이로써 명성교회 세습이 무효화 됐다. 예정통합 총회 재판국은 8월 5일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재판을 진행, 결국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국장 강홍구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한 주문을 기자들 앞에서 간략하게 읽었다. 주문 내용은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재심 청구에 대해서 먼저 선관본심판결(예총 재판국 사건 제102-9호)을 취소한다는 것, 또한 2017년 10월 24일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김하나 목사의 청빙결의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8월 5일 자정을 앞두고 발표한 터라 기자들의 재판 결과가 늦게 나온 것에 대한 질문에, 강목사는 "(국원들이) 전원 합의하려고 애를 쓰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답변했다. 마라톤 재판과 달리 재판국원들은 더 이상 브리핑도 하지 않고 나중에 판결문을 보라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에 대한 판결에 대기고 있던 장신대학생회 학생들과 김수원 목사 동남노

회 관계자들과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이하 명정위) 회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환호성을 질렀다. 이날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총회가 인정할 수 있고 사회가 인정할 수 있도록 노회원들과 함께 명성교회를 새롭게 재건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며 "조만간에 총회장을 찾아가든지 명성교회를 찾아가든지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 모습을 채워갈 아름다운 방안들을 살피서 총회전에 분명한 저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수원 목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노회뿐만 아니라 저의 교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도 자중하고 교단을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봐도록 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당일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바른 판결을 해 줄 것을 요구한 장신대 총학생회장 김주엽 군은 "2017년부터 만 3년간 지금 결과를 위해서 지금까지 왔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상처를 받은 교인들과 한국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제 잃어버린 신뢰를 하나하나 회복하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조병길

회장은 재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8년 103회기 총대들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가 드디어 법적으로 인용됐음을 의미하며 2017년 9월 서울동남노회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총회법과 사회법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날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해 담임목사 위임자중하고 교단을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회장은 재심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8년 103회기 총대들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가 드디어 법적으로 인용됐음을 의미하며 2017년 9월 서울동남노회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총회법과 사회법에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그날 자격 없는 자들에 의해 담임목사 위임자중하고 교단을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개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많은 단체가 함께 해준 것에 감사의 말씀드리며 비록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바른 결정을 내린 재판국원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또한 명정위는 "지금부터가 더 어려운 단계다. 한고비 넘겼으니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명성교회 세습이 완전히 철회되어 다시금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의 할까지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장병기 목사는 "총회가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총회 수습전권위가 구입원을 다시 선출해주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판결이 쉽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명성으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힘든 시간이었다"며 험난한 싸움을 해왔음을 밝혔다.

또한 "이번 명성교회 세습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시도했던 사건이다. 욕망에 잡혀서 결국은 부와 권력을 세습하려고 했던,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맘몬을 더 중시했던 것이 명성교회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하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예상총회가 이 문제를 원칙대로 판결했다면 이 문제가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며 총회 지도부가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GOODTV · BTC 업무협약

미디어선교사역 적극 동참

BTC의 비즈니스 사역, 글로벌 선교방송단 통해 선교 확산비즈니스계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단법인 BTC(대표 오주병)가 GOODTV 글로벌 선교방송단 사역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GOODTV(대표이사 김명진)와 사단법인 BTC는 8일 업무협약을 맺고, 미디어선교를 통한 한국교회 회복사역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단법인 BTC 오주병 대표는 "GOODTV와 사역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산되는데 적극 동참 할 것"이라고 말했다.

GOODTV 김명진 대표이사는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BTC와 함께 협력하게 된 것은 새로운 도전"이라며 "비즈니스



를 통해 예수님을 믿은 삶을 지향하는 소중한 사역에 함께 동행해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 선교단체인 사단법인 BTC(Business Transforming Community)는 지리적·종족적 실크로드 전방개척지역 복음화와 영역적 실크로드인 비즈니스계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가는 선교기관이다. 특히 비즈너리를 양성하기 위한 직업 전문성 집중 훈련 프로그램 Vision MBA와 사역적 전문성을 키우는 훈련 프로그램 KIBU School(Kingdom Business School)

장해가고 있다.

앞으로 BTC의 다양한 비즈니스 선교 소식은 GOODTV를 통해 접할 수 있다. GOODTV 방송은 KT SkyLife 193번, IPTV(KT 234번, SK 303번, LG 273번), 케이블TV(CJ 헬로비전323번, 티브로드 224번, 딜라이브 303번, HCN 서울 545번, 그 외 614번, 남인천 406번, 하나 172번, cs푸른 708번, 울산중앙 208번, 충북 191번, 금강 797번) 및 홈페이지(www.goodtv.co.kr)와 GOODTV 어플리케이션, 유튜브(www.youtube.com)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교정공무원 체험

서울남부구치소는 2019. 8. 8.(목) ~ 8. 9.(금) 양일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이 수용자 인권 및 교도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교정공무원 체험을 실시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들은 임용식을 가진 후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보안과 운영지원 작업장 체험, 보안 수용동 근무, 민원과 근무, 의료과 근무 등 계호업무 전반에 대해 현장에서 직접 부딪치며 실질적인 면, 수용자 인권, 교정공무원의 역할 등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경험을 하였다.

양 일간 교정시설을 체험한 연구위원들은 "교정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학습을 통하여 형벌 집행의 준엄함과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이해하였고, 교정시설이 수용자 인권 및 교

도관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과 교정공무원의 역할을 이해하였

A3 칼라 복사기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최초 유성(안료)잉크

Since 1989~ 30년을 한결같이~

- ✓ 물에 번지거나 용지가 휘지 않습니다.
- ✓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90%)
- ✓ 기존 컬러복사기의 1/10 정도

(2019년 기독교 관련 신문에 실린 광고입니다.)

270만원 → 170만원

컬러주보복사기 출시

(복사, 프린트, 스캔, 팩스, WiFi, 양면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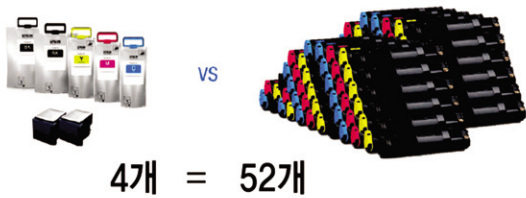
- ✓ 3단 6면주보 출력 가능
- ✓ 4단 8면 주보 출력 가능
- ✓ 주보 양면 연속 가능 (카셋트에서 주보가능)
- ✓ 1m 20cm 배너 출력 가능
- ✓ 현금봉투, 소모품, 대봉투 출력가능
- ✓ 후면 급지대 (80매 적재가능)

※컬러를 물 쓰듯 쓴다 소모품 비용 획기적 절감

이젠 비용 걱정 없이 컬러 인쇄를 마음대로~

- 자동 양면 인쇄 및 양면 스캔 지원
- 12.8cm 대형 컬러 터치 패널
- 대용량 용지 급지함 지원
- PC 없이 스캔 파일을 자유롭게 전송

- 중요한 문서는 비밀번호 설정으로 보호
- 경제적인 슈퍼 대용량 잉크 카트리지로 유지비용 절감
- 동급 최강의 빠른 출력속도(24~34매)



4개 = 52개

테이블(15만원) 옵션

이번에 주문하시는 교회에 한하여 잉크 한 세트(B/K, C, M, Y 4개)를 더 드립니다.

(250매)

(550매)

특별
할인

소모품비용
90%
절감!

이사야 1장 강해 (3) A Study on the Book of Isaiah

김성립 목사
강의 제자신학원



〈지난호 이어서〉

(4) 여호와를 향한 신앙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로 인한 교만과 자기 고집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신앙뿐임을 말한다. 이에 대한 이사야의 적극적인 증언은 사 7:9에 명백히 나타난다.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는 그의 말은 '확실하지 않으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의미이다. 이 외에도 사 28:16에 '믿는 자는 급결하게 되지 아니하리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사 30:15에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어늘'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죄악에서 돌아설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5) 남은 자(Remnant) 사상

아모스도 '요셉의 남은 자'라 언급하면서 북 왕조 이스라엘의 생존자에 대한 언급을 하여 하나님의 사람과 관련시켰는데, 사 6:13에도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릇터기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희망을 상징하는 아들에 대해서 이사야가 일찍이 염두에 두고 있었음은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그의 둘째 아들 스알야습(남은 자들이 돌아오리라)을 데리고 간 점을 미루어 보아 잘 알 수 있다.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이사야는 그의 관심을 백성들에게 돌렸다.

그러나 이사야는 백성들로부터 아무런 좋은 반응도 얻지 못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원리를 아하스 왕이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민중들도 이사야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였다. 그들 역시도 외세의 군사력을 하나님의 힘에 의한 정의보다 더 높이 받들었고 외교적인 정책을 하나님 보다 더 의존하고 있었다. 왕도 설득시키지 못하고 백성들도 감화시키지 못한 이사야는 마침내 유다 민족의 남은 자를 부르짖고 살려주는 소수의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역사의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어서 그들이 항상 인류의 소망으로 존속해왔다. 이 소수의 무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진리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긴다. 이사야는 그 당시의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남은 자(The remnant)라고 이를 하였다. 왕과 백성들은 비록 죄와 불신앙으로 침륜되고 있었으나, 이 남은 자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사상과 생활을 지켜나가고 있었다.

이사야가 이들에 대해서 언급할 때 단순히 생존자들이 있고 없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춧돌을 강조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사 28:16). 시험을 거친 정련된 남은 자들로 소망을 삼은 것은 이사야의 중요한 사상일 뿐 아니라 후일에 유대주의와 기독교의 핵심 사상으로 발전하였다. 이 남은 자의 사상은 교회에 대한 사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6) 메시아사상

메시아사상은 남은 자 사상과 함께 이사야서의 주류를 이루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사야는 공식적으로 아하스 왕의 정책에 반대했고, 히스기야의 정책에도 무비판적이지 않았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이사야의 근본적인 의도는 왕들의 외교 정책을 할책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불가침성에 대한 강조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위협할 당시(BC. 701) 그가 히스기야를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일차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대망은 당대의 처지자들에게 대한 불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간으로 한 영원한 나라의 통치를 염두에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사야가 이전에도 메시아에 대한 선언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임마누엘 예언'(참조, 사 7:10-17)은 메시아사상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10-17을

포함하여 9:2-7과 11:1-9는 메시아에 대한 세 구절인데, 9:2-7은 현재의 일을 말하는 것인지 장래에 성취될 일을 말함인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어쨌든 9-11장에서 말하는 메시아사상은 당시의 이상적인 왕 이념에서 나온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 전통적인 왕은 신성했고 반신적인 존재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전적으로 종속된 대리 통치자였다.

이와 같이 메시아사상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이고도 이상적인 왕권을 형상화시킨 것으로서 그 모든 초월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대리인이며 그의 명을 받아 모든 것을 통치하는 자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7). 또 사 32:1-8의 '공의로 통치하는 왕, 정의로 다스리는 방백'에 대한 기록은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의 속성과 그 속성이 성취되어지는 사회의 모습을 말해 준다. 이사야의 메시아사상은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도래를 바라보고 그 세계의 영원한 신 통치를 말하고 있다.

(7) 역사관

앗수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에 있어서 여호와와의 섭리하심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밖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사야의 핵심적인 역사 철학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혹은 다른 민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도 앓수르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사용이란 하나님 자신의 목적 성취를 위한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의도에서의 비인간적인 수단화로서의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도구의 의미와 가치는 보다 본질적인 것 이어서 창조주이신 여호와의 섭리적 방편으로 쓰임으로써 인간은 보다 인간다워지며, 역사는 올바른 방향으로 행해진다는 데 그 깊은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앓수르를 수단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의 의미는 실로 중대하다. <다음호에 계속...>

제3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도영성 신학(3)

하나님의 생명력을 깨닫은 사도들 순교를 각오한 사역

〈지난호 이어서〉

2. 사도영성 신학의 개념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영성 신학'이라는 용어는 신학사의 흐름 속에서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일컬어져 왔다. 혹자는 단순히 '영성'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영성생활, 신심생활, 초자연적 생활, 내적 생활, 신비적 수련, 그리고 크리스천 완덕 신학 등으로 부르기도 했었다. 영성생활에 관한 체계적 신학을 명칭하기 위하여 처음부터, 또 지금 까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용어는 '수덕생활'과 '신비생활'이다.

옛날부터 그리스도인의 완성단계(3단계)를 ① 정화(淨化)의 단계, ② 조명(照明)의 단계, ③ 일치(一致)의 단계로 구분해 왔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수덕신학은 ① 정화의 단계와 ② 조명의 단계를 취급하는 것이고, 신비신학은 ③ 일치의 단계를 연구하는 것이라 보기도 한다. '영성신학'이나 '영성'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수도원이나 수도생활을 모르고 지내는 개신교에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던 문제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완덕 신학에 대한 공식

용어는 없다. 다만 경건, 심령, 신령생활, 영적 생활 등의 용어를 사용해 왔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 비슷한 내용에 관해 '수덕신학'과 '신비신학' 두 가지를 따로 따로 불러왔는데, 지금 와서는 '영성신학'이라는 하나의 명칭 속에 '수덕적 요소'와 '신비적 요소' 두 가지를 포함시켜 사용한다. '수덕적'이라는 용어는 어떤 기술, 특히 운동기술을 숙달하기 위하여 연습하고 훈련한다는 의미를 지닌 'asketic'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한다.

후에 이 단어는 '철학연구'나 '덕행실천'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런 의미로 사용하였다. '신비적'이라는 용어 역시 그리스어 'mysti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오직 신일 신자들에게만 알려진 은밀한, 혹은 감추어진 전례를 가리키던 말이었다. '신비신학'이라는 표현은 6세기 초에 '신비신학에 관하여' (De mystica theologia)의 저자인 '위-디오니시우스' (Pseudo-Dionysius)가 '서방 신학'에 소개하였다.

이 당시 '신비적'이라는 단어

는 그 이전의 개념인 신비적 지식 같은 초월적이고 심오한 지식이 아니라 더욱 발전하여 신에 관한 체험적이고, 직관적인 지식을 가리키게 되었다. 그 후 이 단어는 점차로 '관상'이라는 뜻과 동일시되었다. 수덕과 신비는 종교생활 안에서 불가분의 관계를 지닌다. 그리스도인의 완덕에의 생활에 있어서 '신비현상'은 수덕현상이 동반됨이 없는 바로 이해될 수 없고, 또한 '수덕 현상'은 그 자체 안에 반드시 신비에 대한 체험이 씨앗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합쳐 '영성신학'이라 한다.

1) 정화(淨化)

우리 인간은 어떤 큰 '종교 체험' (신비체험)이나 '회심 체험'을 했다 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회심과 중생 체험을 하고 '속죄와 칭의(稱義)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회심과 중생 체험을 하고 나서도, 우리 속에는 아직까지 탐욕과 위선, 미움과 교만과 자



홍향표(요한) 목사
사도영성 아카데미 원장

기중심 등, 죄의 씨앗과 뿌리가 여전히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에 종교 개혁자 '루터' (M. Luther)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라고 말하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지만, 나의 전 존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 같이 의로워지고 성화 되지는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존재가 참으로 의로워지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곧 성도(聖徒)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정화하는 정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정화'는 영혼을 한층 깊이 하나님과 일치시키기 위한 완덕의 초보자의 상태이다. 완덕에 대한 동경을 품고 성성(成聖)의 성충 상태에 있는 자이다.

<다음호에 계속...>

| 마약 범죄와의 전쟁(7) |

헤로인 중독성 마약이란?

〈지난호 이어서〉

마약

윤리와 도덕관이 확고하고 마약에서 파생된 피해가 거의 없던 이조시대는 중국에 넘나들던 관료들이 중국에 아편이 성행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는 걱정을 하였을 뿐 마약사범을 국법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 조선 총독부시절 일본은 한국에서의 마약단속을 허술하게 하였고 일부러 묵인, 조장하여 1920~1949년까지 연간 2만여 명에 달하는 마약 중독자가 발생되어 6.25동란 이후까지 계속되어 연간 7만여 명에 가까운 마약사범이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5.16혁명으로 사회질서가 정착됨에 따라 근절되었었는데, 1989년 북방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 교포들의 자유 왕래에



홍성선 목사
마약정보학박사
NGO세기독청 설립이사장

의거 마약유통인 아편유입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황금의 삼각지역(golden triangle)인 미얀마, 라오스, 태국을 중심으로 한 양귀비 재배지역에서 연수십만톤의 아편을 생산하고 있고 북한이 아편 생산국으로 새롭게 등장 외화 획득 목적으로 유통시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1988년을 전후적으로 히로뽀이

공급되어 현재까지 총기와 더불어 사회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대마

인간이 대마초를 사용했다는 기록은 기원전 273년 고대 신농 황제의 목초서인 중국의학 개론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리아나, 즉 대마초는 고대사회에서 사회적으로 대단한 논의의 대상이 되어 어떤 사람은 마리아나가 지옥으로 이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천국으로 가게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 대마가 고대부터 섬유용으로 각 지방에서 재배되어 온 바가 있다. 흡연물로 대마초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것은 월남전이 한창이던 1967년 이후부터이다.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들 간에 흡연된 것이 1967년경부터 이들과 접촉하는 접대부, 약

사, 가수들이 흡연을 하기 시작하다가 일반인들에게까지 파급되어 1976을 전후하여 가장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였는데, 1994년 현재까지 일부 연예인들을 비롯 특정인들에게 계속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타 본드 부탄가스 일반약물...

최근의 동향과 실태

1970년대에는 대마(大麻)사범, 1980년대에는 향정신성 사범인 히로뽀 등으로 시대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는 마약사를 요약해 볼 수 있다. 마약류 사용자 계수를 인구 10만명당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9.2명, 일본 18.7명, 미국 637.6명, 프랑스 55.9명, 태국 98.1명, 스페인 65.8명이며, 일반적으로 계수가 두 자리 숫자로 접어들면 공권력에 의한 단속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PLO 2019 밀레니엄한미준21 세미나

한국교회 부흥을 넘어 미래로! 세계로!

“미래를 창조하는 탁월한 교회 핵심전략”

일주-1주 한미준21 강사진



박장석 목사
병결교회
목회와설교



박성민 목사
한국대학생교회
청년사역
패러다임의 변화



정성진 목사
가톨릭중앙교회
4차산업시대
교회개혁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한국교회



강재애 목사
우리들교회
100% 응답하는
기도
(퀴즈와기도)



강기훈 목사
비바교회/97세대
설교작성에서
설교스피치까지



강석향 회장
소망교회
목회자의
건강지혜



신성욱 교수
아메리칸침례대학교
원포인트의
드라마틱
강해설교



김장석 목사
빛의교회/전도협회
Search for
Jesus



김은희 대표
FMA
관악의
관정에서
설교하기



박신욱 대표
GBS글로벌복음방송
글로벌
다문화와
마지막시대 선교



이정현 목사
군산침례교회
주일학교
부흥의 전략
ABCO



조성돈 교수
부산신학대학교
4차 산업시대
목회



안호성 목사
부산방송복음교회
살아있는
교회부흥 현장

선교의 새 장을 여는 <온라인 전도 프로젝트> SERCH FOR JESUS

새신자를 지역교회와 연결해 양육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전도전략 추진 Serch for Jesus(예수님 찾기) 사역을 <한미준21>에서 소개합니다.

SERCH FOR JESUS | 사역현황 및 열매

2011년 4월 빌리그래함 전도협회에 의해 시작되었고 전 세계에서 1,300만명을 결신케 함으로써 효과적인 전도와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 특별게스트



김상연 목사
CCM가수
유은성 전도사



유은성 전도사
열사다이
한영단

EXPLO 2019 밀레니엄한미준21 세미나

날짜 | 2019년 8월 26일(월)-28일(수)

장소 | 사랑의교회 안성수영관

대상 | 총 350명(목회자, 사모, 신학생)

※ 등록방법: <한미준21>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www.mhan21.org

■ 등록비

① 2인칭대객실(1인14만원 선착순70명)

② 단체등록객실

(1인 10만원/6인실/20인실 선착순 방배정)

③ 신학교 재학생(7만원/중영서 확인필수)

■ 등록계좌

우리는행 1002-455-353917

예금주/정성진(한미준21)

밀레니엄한미준21 홈페이지 www.mhan21.org

■ 등록계좌

우리는행 1002-455-353917

예금주/정성진(한미준21)

밀레니엄한미준21 홈페이지 www.mhan21.org

한미준21 운영위원

대표성장이

정성진 목사
가톨릭중앙교회

신행성장이

황규식 목사
수지산교회

신행성장이

공자태 목사
낙원교회

신행성장이

정관진 목사
평안교회

■ 문의: 070-4128-0912

■ 담당자: 총괄운영 정 진 목사 010-7400-7072

■ 협찬: 기독교사회환원기업 소망글로벌 미네랄바이오 GBS글로벌복음방송 목회자전문네트워크 목사월드



2019 주님과 함께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 방송 사장
- 라이프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백성TV 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제 목: 오직 그 이름이다
성 경: 시편 124:1-8 찬송가 214장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 기까지 인도하시지 않고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 편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상고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이 보호하 지 않았더라면 애굽 군사들의 노여움으로 산채로 삼길 당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나의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그 이름만 높이 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 에서 벗어난 새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 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 으신 여호와와 이름에 있도다”(시124:7~8).

제 목: 전에도 그랬듯이
성 경: 역대상 11:1-9 찬송가 543장

다윗이 왕에 오른 후 첫 번째 전쟁을 맞이하 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5절에 예루살렘 주 변에 있었던 여부스 족속이 방해거리로 등장합 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을 여부스는 자신의 땅으로 착각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곰과 사자의 공격 에도 함께 하셨으면 블레셋과 골리앗의 공격에 도 함께 하십니다. 작은 일에도 함께 하셨다면 큰일에도 함께 하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 목: 기념하리
성 경: 고린도전서 11:23-26 찬송가 265장

바울은 예수님의 삶과 피를 나누는 성만찬 의 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할 것”을 가

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하는 동시에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 다. 도 바울은 주의 만찬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 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했을까요? 바로 성만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 의 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약의 속죄의 제사에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희생제사의 개념이 있습니 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 해 그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제 목: 기념하리
성 경: 고린도전서 11:23-26 찬송가 264장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 한 기억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억에서 기념으로의 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에 게 있어서는 삶과 피를 나눠주시는 분이시고, 나 의 죄를 씻겨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 셴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단계로 발전해 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이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고백해야 하는 신앙고백인 것입니다.

제 목: 전도자여 담당하라
성 경: 누가복음 10:1-9 찬송가 499장

누가복음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 를 선택하고 뽑은 이유는 “예수께서 열 두 제자 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여며 병을 고 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 파하며 앎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선택하셨습니 다. 3년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신 이유는 동네 마다 나가서 병자를 고치고 전도하도록 훈련시 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않고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70명을 뽑고 선택하시며 들씩 짚을 지어 내 보내셨는데 이것은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보 내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 임니다. 담당하십시오.

제 목: 다시 그 언어를 활용하라
성 경: 요 11:23-39 찬송가 353장

성도라면 가장 절망적일 때도 부정적인 말을 금하고 될 것을 말하는 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합 니다. 나사로의 죽을 앞에서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한 번 생각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 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 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 가 아나이다” (요11:23~24).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 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낱새가 나나이다”(요11:39). 죽은지 나흘이 되었다, 낱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 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

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살라는 언어를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제 목: 다시 그 언어를 활용하라
성 경: 요 11:40-44 찬송가 351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 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 니”(요11:40). 썩은 것, 냄새 나는 것, 막힌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는 눈이 열 리길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인 소리 하지 말고 입으로 복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언어는 살아나게 하시고 풀어 놓아 자유 롭게 다니게 하시는 언어입니다. “이 말씀을 하 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묶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 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 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요11:43-44).

제 목: 왜 그렇게 물으셨을까?
성 경: 요 21:15-17 찬송가 315장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묻는다면 어떨까요? 그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 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 셧을 때 베드로 또한 고민하고 근심했습니다. 예 수님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 하는 그 마음으로 양을 먹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사랑이 빠지면 지칠 일이 아닌 것도 지치고 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두려운 일도 담대하게 헤쳐 나갈 수 있지만 사랑이 없으면 두려운 일 앞에서 낙담하게 됩니다. 그분을 사랑 한다면 그 사랑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 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 목: 에벤에셀
성 경: 사무엘상 7:12 찬송가 384장

본문의 ‘여기까지’ 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때 사무엘과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추격해 갔던 서 쪽 한계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 40년 간 블레셋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이 싸움 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족속의 영역권 인 가나안 서쪽까지 막강한 블레셋 군대를 공격 하면서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입니다. 한마디로 여기까지 여호와를 경험했다 는 것이 에벤에셀의 뜻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의 간섭함이 없는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복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 목: 그 고백위에
성 경: 마태복음 16:13-20 찬송가 200장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 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 16:16).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해 압축적으로 설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쁜 부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 름 부름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교회의 토대가 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그가 한 고백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 던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 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천국의 문을 여는 권 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 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목: 확실한 은혜
성 경: 이사야 55:1-3 찬송가 143장

무엇인가를 산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자 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 문은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 원의 은혜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 가 죽음은 가격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가치 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의 삶, 지 욱의 삶을 단번에 끊어놓으셨습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 이러한 확실한 은 해 속에 잠겨 살면 불평이나 원망 하지 않고 서 로를 용서할 수 있으며 힘든 일도 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그 고난 과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입니다.

제 목: 그들에게
성 경: 이사야 31:10-14 찬송가 309장

흘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으시는 분도 하 나님이시라는 것은 다시 말해 빼앗아 가시는 것 도 하나님이고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의 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안 해주 신다고 불평하며 부르짖지만 가만히 보면 너무 급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응답의 때를 정해놓고 애걸복걸하기 보다는 하나님 뜻 가운데 서서 그 분의 뜻을 헤아리며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양 때, 소 때를 맞게 하시고 물 दें 동산같이 해주신다는 것은 부유하 고 풍요로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 다. 우리는 선택받은 결코 끝나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 리를 부유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 신앙예세이 『순종』 ||

불순종할 때는 버림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 않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 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 셴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0-13).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도록 문을 열 수 있었다면 하 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마음의 문을 다 열었으 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되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인간의 마음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 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은 모두 예수 믿게 하는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여러 사람이 복음을 들었지만 마음에 감동 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고 싶어도 열

수가 없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문 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문을 두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을 여는 결정은 인간이 한다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여신다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고, 직접 열 어서 깨닫게 하시면 된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 수님을 믿은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 었기 때문인가? 그들 스스로가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연 것인가? 그들을 선택했기 때 문에 마음의 문을 연 것인가? 마음의 문을 열 고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인가? 선택이 조 건적인가, 무조건적인가? 하나님이 루디아를 만세 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마 음의 문을 연 것인가? 아니면 루디아가 마음 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루디아를 감 동시키고, 그를 선택한 것인가?

“아람아 너를 창조 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 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 니라 너는 두려워 말 라 내가 너를 구속하 였고 내가 너를 지명 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 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할 마음을 먹은 것이다. 이스 라엘을 지명한 근거는 조건적인가, 무조건적 인가? 아무리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더라도 그들이 불순종할 때는 버림을 당한 것이 이스 라엘의 역사였다. 그러므로 인간의 순종이 조 건이 된다.

골든벨교회
조봉상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2018년-2020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8753-7179
교회 : (02) 934-1232(대)

- 열방부흥선교협의회 총재
- 극동방송 칼럼리스트
- CBS TV 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JTN TV, 신문 칼럼리스트

2018년 11월	2019년 2월	2019년 6월	2019년 9월	2020년 1월	2020년 5월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7 행복이넘치는교회(이영건 목사) 8 안양갈릴산금식기도원(임제제 원장) 12-14 영광교회(송성준 목사) 15 보리바전교회(구경모 목사) 19-21 경천교회(김원경 목사) 26-28 재전예복교회(강대중 목사)	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4-7 감림산기도원(이옥련원장) 11-14 임마누엘교회(황형진 목사) 17-20 부야기동교연합성회(회장·신건재 목사) 25-27 보리바전교회(구경모 목사)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목사) 3-5 천성교회(이원정 목사) 9-13 본교회부흥회 17-26 미주성회 27-28 세상철원합세미내(정복준 회장)	2-7 인도선교 9-10 노회군선교지방문 15-17 군포침사랑교회 18 외산정향교회 23-26 안양금식기도원 27 양평금식기도원	6-8 상대교회 13-16 광은기도원 19-22 한길교회 27-29 한얼산기도원	4-6 소망교회 10-13 하남풍성한교회 18-29 미주순회성회
2018년 12월	2019년 4월	2019년 7월	2019년 10월	2020년 2월	2020년 6월
2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3-5 살롬교회(고정희 목사) 10-13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16-21 본교회부흥회 25-29 송구영신을 위한 신상기도	1-3 사랑교회(김상준 목사)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1 예본교회(강대중 목사) 15-18 산돌교회(한상길 목사) 22-23 정기노회 24-25 파전예복교회(노영수 목사) 28 회망산교회(정복준 목사) 29-1 삼성교회(김규명 목사)	7월1-3 모리아교회(조석희 목사) 4 평화의동산(피종진 원장) 7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8-11 다니엘교회(김명수 목사) 15-19 선교자신학(여름세미나) 21-27 특별심사기도회(본교회) 29-1 설화산기도원(노베드로)	1-6 선교지사역자초청주간 7-9 남포월드관퍼런스 14-15 정기노회 17-18 성소기도원 21-24 베데스다교회 28-30 청원지구총교회	3-6 감림산기도원 10-12 양평순복음교회 17-20 부여한사랑교회 24-26 천주산남교회	1-3 모리아교회 8-10 예본교회 14-17 본교회부흥회(강사·박순애전도사) 22-25 초대교회
2019년 1월	2019년 5월	2019년 8월	2019년 11월	2020년 4월	2020년 7월
1-3 강기동부지방연합성회(회장·홍성장 목사) 3 한얼산기도원(이영준원장) 5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6-9 주영광교회(김진관 목사) 14-17 광은기도원(김해 원장) 21-23 평강교회(이경규 목사) 28-1 선교지방문	6-8 천하성교회(하문 목사) 13-16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20-22 동광교회(이경열 목사) 27-29 풍성한교회(윤정희 목사)	4 천보산기도원(우정제) 원장) 5-7 남부지방연합수련회 9 한얼산기도원 12-22 광은기도원(김해 원장) 19-22 감림산기도원(이옥련 원장) 26-29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4-7 광산수양관 10-13 푸른교회 14 보리바전교회 18-22 필리핀선학교세미나(빛줄염식) 25-28 포천제일교회	30/3-1 포곡제일교회 5-8 열린문교회 13-14 정기노회 14-16 파전예복교회 20-22 수산교회 26-29 은촌교회	6-9 다니엘미종기도원 13-16 임마누엘지유센터 20-24 선교자신학(여름세미나) 27-29 한얼산기도원
2019년 3월은 축복심방의 달	2019년 8월	2019년 12월	2020년 3월은 축복심방의 달	2020년 8월	2020년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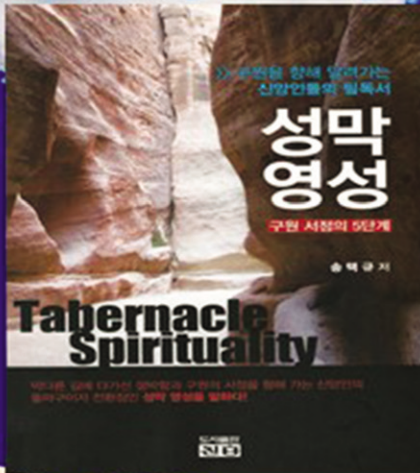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원원로40 (장암동)

주관 : 지저스타임즈 / JTNTV / CPJ방송. 후원 : 크리스천 영성, 시니어 타임즈US. 말씀실천운동본부

살아 있는 성막 영성 세미나

선착순 50명 분에 한해
송택규 박사 저서 서점
가 20,000 원 대 성막영
성 강해집을 증정함!!

장소 :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4층401호)



강사

성막 영성 저자
송택규 박사(Ph.D.)
전 유인대 학장, 부총장
전 로드랜드대 학장, 부총장
현 말씀실천운동본부 회장
미주 시니어 타임즈 발행인
지저스타임즈 JTNTV 주필

연락처 : 010-5468-6574
032-574-6574

서울시 중로구 대우로3길29 02)741-4370

일시: 2019. 9. 20(금) 오전 10:00~오후 2:00



대한예수교 장로회 웨신총회 제 104회 정기총회 공고

총회장

주제 : “협력하여 선을 행하는 총회” (롬8:28)

직전총회장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제1부총회장



박정균 목사
번성교회

제2부총회장



정순욱 목사
미래선교회

총무



이준영 목사
낙타방송

서기



성용구 목사
송석교회

회계



마순덕 목사
사랑하는교회

부회계



최정수 목사
일상교회



이영중 목사
빛 교회

웨신총회의 자랑

본 교단은 종교 개혁을 통해 확립된 성경 중심의 신학과 하나님의 종신의 예배와 삶을 실천하고 가르치기로 서약하는 모든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정체성을 가진 목회자들과 함께 교계의 표준총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또한 교단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 회원 교단으로 연합과 화합에 협력하고 있다.

목사 안수 및 교단 가입 문의 : 010-6878-1324 / 총회장 허창범 목사(신학박사, 교육학박사)

일시 : 2019년 9월 2일(월) 오전 11시

장소 : 일상교회(최정수 목사시무/010-2252-3352) 총회사무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172, (302호)

주소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정로159번길 10 ☎(02)835-2606-7 Fax (02)835-2608 http://ws21.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보수 제 104회 정기총회 공고

총신대 이사장



이규필 목사
동선교회

총신대 학장



윤석희 목사
전북교회

총회장



강대일 목사
평안교회

목회대학원장



서봉기 목사
소망교회

제1부총회장



정호석 목사
사랑의교회

제2부총회장



윤운선 목사
한빛교회

서기



임상국 목사
전북복지교회

부서기



주지광 목사
사전대교회

회의록서기



서재식 목사
중성안교회

회의록부서기



김수현 목사
발라리아교회

회계



송인섭 장로
양문교회

부회계



이전수 장로
전북교회

일시 : 2019년 9월 24일 (오전 11시)

장소 : 진주사랑의교회(제1부총회장 정호석 목사시무)

주소 :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934

전화 : ☎ 055-748-7186, H.P 010-3533-0191

본 합동보수 교단은 생명의 말씀을 외치며 영혼구원을 위한 뜻 있는 목회자, 교단, 기관의 가입을 환영합니다.

총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53길 94, [가산동]
☎ : 02)854-1326, Fax 02)496-0181 H.P 010-7474-3173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선교회
이사장 : 이규필 목사